

구역공과 제3권 (5단원 : 보혜사 성령) (제27과) 성도를 위한 성령의 사역

- 본문 : 요한복음 14:25-29, 16:12-15
- 요절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 찬송 : 175장(새찬송가 195장), 427장(새찬송가 191장)

공과내용

성도의 삶은 성령님의 사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거듭난 성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과 교통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의존해서 살면 실족하게 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활기찬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 구절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는 말씀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케 하셨으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놀랍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영에 속한 것이므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유대인들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성령님께서 거듭난 성도 안에 거하시며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난다’ (요 3:6) 함은 거듭난 곧 중생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님은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요 14:26).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언제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2.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이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

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담대함과 열정을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앓은 병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하루에 삼천 명 혹은 오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신체불구자가 고침을 받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크게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각처에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살전 1:5)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 사역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하신 말씀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성화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모든 과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시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 흠 없고 거룩한 자로 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뜻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 4:30)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소욕을 성령님의 소욕에 복종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좇아 행하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뜻을 좇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갈 5:22).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고후 1:22, 엡 1:14).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들의 성화를 도우시며,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그 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내재(內在)하시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날에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